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 심포지엄

-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전문화 필요 -
- 홍성·예산-청양-부여간 교통망 체계 개선 필요 -
- 행정도시 건설 계기 2030년까지 충남지역 61만 2천명 고용창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공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임형재 충남도정무부지사, 유승화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강용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 교수 및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개회사, 임형재 도 정무부지사의 심대평 도지사 축사 대독, 유승화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의 이춘희 행복도시건설청장 축사 대독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順으로 진행됐다.

이날 ▲1주제 발표에 나선 임재영·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행복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를 통하여,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도시(12부 4처 2청 18국책연구원)로 축소되었지만, 행정도시를 계기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은 총 61조 1천억원, 부가가치는 26조 3천억원 증대되며, 충남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45조의 생산액, 27조의 부가가치, 61만 2천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주제 발표에서 이선하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복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행복도시건설과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의 종합교통체계를 제시했으며, 특히 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지~청양~부여간 근접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3주제 발표에서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복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의 발표를 통해 주변지역 산업전문화 방안으로 ▷천안시는 영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으로 ▷공주시는 교육, 문화산업, 관광·레저산업,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전원형 주택산업으로 ▷계룡시는 국방·방위산업, 전원형 주택산업으로 ▷연기군은 물류산업, 신기술·첨단벤처산업, 오락·유흥산업으로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복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행복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행복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이 충남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행복도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분업적인 관계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과 지역특화 전략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